추억의 병영도시-일동 제1회 일동오뚜기 한마음 축제 개최

군부대 주요 무기 시가지 행진 … 병영체험 시연 등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상생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1회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가 오는 16일 일동면 기산리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육군 제8사단을 전역한 수많은 장병들이 젊은 날의 추억의 병영생활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6일 하루 동안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일동면이 주최하고 제8사단과 일동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며, 일동면 각급 기관단체 등이 후원해 이루어진다.

식전행사로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제8사단 장병들이 참여하는 군악대를 선두로 주요 무기 시가지 행진이 펼쳐진다.

이어 일동중학교 학생들의 개막축하 사물놀이와 제8사단 군악대 시연이 진행된다. 또 축제가 개최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무기 및 장비 전시를 비롯해 서바이벌 사격체험, 군부대 견학, 옛 전우 만남의 정(반갑다 전우야), 완전군장 후 빨리 집합하기, 병사 장기자랑, 군부대 식사체험, 반합라면, 건빵 시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인기연예인 초청공연과 치어리더 공연,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와의 만남, 부대활동 사진전시회,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는 오뚜기 벼룩시장 등이 상설체험장으로 운영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창립맴버 지속적 노력으로 자리매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임원회의가 지난 8일 송우리 모 음식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운영위원회 하반기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됐다.

윤이용 위원장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이제 기반이 잡혔다"면서 "기존 위원들이 신임 위원과 좀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그동안 창립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위원간의 지속적인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흥미있는 것"을 창안하자고 제안했다.

유병호 고문은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호열 발행인은 "윤이용 위원장님께서 위원간의 친목도모와 융화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해 왔다"면서 "운영위원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이대로는 도저히 살수 없다

박 병 식
본지 조사위원

포천시 이동면 연곡5리 주변 마을 주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차(탱크) 사격장의 문제를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 마을은 평안하고 한가로운 연곡리에 위치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동네 뒷산을 온통 자리잡고 있는 원평 탱크사격장 때문에 우리 수십 가구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수십 년 간 감수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 차례 진정과 탄원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되기는커녕 그 피해와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시민의 조그마한 불편에는 직접 정부에서 나서 수십억 수조 원씩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시골 사람의 생활에는 공포와 불안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의 고통을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의 몫으로만 안겨주는 정부와 군 당국의 방만한 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만 합니다.

1999년도에 청와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와 군 당국에 마을 주민 200여명의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아직껏 아무런 대책도 답변도 책임 있는 한마디도 주민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해 해당국에 소신 있는 답변과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격장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주변과 고속도로 주변 마을에도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하물며 사격장 주변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방음벽을 요구했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둘째,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이 스트레스로 유산되고 산유량이 감소되며 성장부진 등 큰 손해를 입고 있다.

셋째,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 균열 및 파손 침하 훼손 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넷째, 소음으로 인한 정서불안 등 막대한 피해를 아니 희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섯째, 밤 9시 이후에 실시하는 야간사격으로 요즘 농번기에 농민들이 피곤하여 일찍 취침해야 하는데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여섯째, 훈련장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일곱째, 전차 훈련 후 복귀시 세륜장이 있으나 형식적 설치로 도로가 흙으로 엉망이 되고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사항 이외에도 연곡리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직껏 한번도 친척들이 찾아와 편안하게 잠을 청하여 마음놓고 잘 수 없는 공포스럽고 불안한 동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는 어린이들을 동반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인적도 드물고 친척도, 부모도 모셔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이 지역을 하루속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마을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세이

촌스러운 입맛!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 고문

딸아이가 결혼해서 쌍둥이 엄마가 된지 벌써 2년이 가깝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보니 한번도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딸아이 또한 구원요청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쌍둥이 엄마 노릇을 잘 해냈다. 돌 때가지 두 아이를 모유로 키웠으니 분유 먹이는 것보다야 손쉬웠겠지만 한꺼번에 둘을 키우기란 생각만 해도 대견하다. 포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S여대에 입학할 때까지 공부하라고 성화해 본적은 없었다.

밤공부를 할 때 야참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니 엄마노릇 영 형편없었다. 대학졸업후 대학원 진학 할 때도 남편이랑 아들들은 대환영하고 반대표는 나 혼자였다. 영어영문학과 졸업이면 만족이지 대학원 나와서 결혼하면 콧대 높아 남편 우습게 보는 거 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등록금 대줄 아버지 백그라운드에 나만 미운 오리 새끼였다. 졸업후 연봉도 괜찮은 회사에서 2년여 동안 근무하다 지금 사윗감 만나 결혼하고 더 늦기 전에 아이 낳겠다고 하더니 쌍둥이 엄마가 되었다. 난 자동으로 쌍둥이 외할머니가 됐지만... 어릴 때부터 아기들만 보면 유달리 예뻐해 제 오빠가 결혼해서 조카들 생기니까 방학 때면 엄마 노릇 할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더니 쌍둥이 기르면서 힘들다는 소리 한번 안하고 잘도 키운다.

천성이고 팔자구나 생각하는 나보다 남편은 딸이 안쓰러워 도우미 아줌마라도 몇 일에 한번씩 보내자고 하지만 나보다 딸아이가 싫다고 한다. 돌이 가까워 모자라는 모유대신 이유식도 잘 챙겨 먹이고 잔소리할 이유도 도와줄 틈도 보이지 않아 나의 속마음은 딸이 고맙기까지 하다.

요새는 사위직장이 멀다고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부터 새집 정리정돈까지 한번도 갈 수 없었고 오라는 소리도 안하더니 집들이 겸 초대하니 며느리 손자 등등 대식구가 새집구경을 갔다.

한참만에 본 딸아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 내심 찔리는 마음에 힘들어서 아팠냐? 고 물었더니 대청소는 물론이고 커텐을 직접 만들어 걸었다니 그 억척 짐작이 간다. 괜스레 죄지은 표정으로 사위가 멋쩍어 하며 "커텐도 맞추고 청소도 사람 써서 같이하라고 했더니 어머니 한테 아이들 맡기고 혼자 다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시댁식구들 초대해 잔치하고 연이어 친정식구까지 챙기니 음식장만은 좀 손이 많이 가나.... "제 몸 아낄 줄 모르고 무쇠처럼 쓰면 이담에 고생한다."며 못마땅해 했더니 "이게 다 엄마 닮지 않았겠수?"

웃으며 받아넘기니 밉지는 않지만 수 십년 먼저 살아온 나야 억척스레 살아야할 날들도 있었지만 너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니? 입 밖으로 말못하고 꿀꺽 삼키며 있자니 괜스레 코끝이 시리다. 댓평 늘려온 집이라고 마냥 좋은지 분주히 오가는 딸아이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그래 행복은 언제나 네 안에 있는 거다"

새집을 둘러보는 내 마음도 덩달아 여유 롭고 즐거우니 실로 기쁨은 나눠도 두 배가 되는구나. 내게 보여준 너의 부지런한 모습이 오월의 장미만큼이나 아름답구나.

에세이

고구마

김 미 경
주부 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며칠 전 고구마를 심으려고 고구마 순을 구입했다. 밤고구마 순보다 호박고구마 순이 값이 더 싸다고 하여 호박고구마 순으로 구했다. 아는 사람이 파는 지라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모자도 덤으로 3개나 얻어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막상 심으려고 보니 순이 너무 여린 게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아 심으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고구마를 심고 하루가 지나자 고구마 순들이 축축 늘어져 걱정이 더해갔는데 다행히 비가 연일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돕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밭에 올라가 보니 고구마 순들이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비가 몇 번만 더 오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 싶었는데 내 바람대로 비가 계속 와 주었고 고구마 순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올 가을엔 맛있는 호박고구마를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이렇게 심은 고구마를 겨울철 난로 위에서 구워먹으면 집안에 퍼지는 은은한 군고구마 냄새와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의 달콤한 맛으로 추위도 잊고 지내곤 했다.

어릴 적 나는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노는 것이 일과였다.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러 다니는 일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남들이 다 캐고 난 고구마 밭에서 미처 다 캐지 못한 고구마를 힘이 좋은 오빠들이 삽으로 캐내면, 나는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며 주워 담는 일이었다.

주먹만한 것부터 팔뚝만한 크기의 고구마들로 금새 바구니가 찰 때면 그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구마를 캐오면 나는 고구마를 날로 까먹기도 하고 밥에 넣고 쪄먹기도 하고 장작불에 구워 먹기도 하면서 겨울을 보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라나는 고구마 순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⑪

시민의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장 승 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웰빙 시대와 맞물려 드디어 레포츠의 계절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우리네의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의 중요성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구계에서도 프로야구 원년의 스타 투수 박철순 그리고 최동원씨가 암과 투병하며 싸워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멋진 경기로 팬들을 사로잡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먼저 떠난 왕년의 스타들은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 빠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이 빠르게 노인화되고 있는 포천의 우리 부모님들을 책임져야 할 때가 왔고 또한 계속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복지정책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구체적인 체계와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요? 정책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들과 시민의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천만원씩 시민의 세금을 탈세하는 자가 버젓이 시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곳. 여기 포천의 현 주소입니다. 누가 누가 돈 먹었다더라는 이야기보다 가난한 시민이 도움을 받고 억울한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포천에 필요한 것은 뼈마디가 구부러지도록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다하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대의 포천을 만들고 물려주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의 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민이 소환 할 때가 다가왔나 봅니다.

자유기고

웰빙 농장 가꾸기

김 순 희
주부 명예기자단
내촌면지부장

햇님이 잠시 구름사이로 쉬어가나보다. 그 사이 놓았던 호미 자루 다시 어린 열무 다시금 보듬어 본다.

몇해째 해보는 조그만 나의 무공해 밭. 열무 한고랑, 고구마 100개, 가지 6대, 상치 4포기(씨앗이 떨어져 난것)옮겨 심었다.

한결에 2년차인 도라지, 그리고 두고랑 차지해버린 대파, 아하~~ 중요한 옥수수가 빠질뻔 했네요. 그것도 요즈음은 모판으로 팔아서 반절모판 아들이랑 심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키우는 웰빙 농장이죠. 열무에 약을 안주었더니 앙상한 가지로 변해져 가고 오늘은 잠시 일하던 거 접어두고 열무랑 씨름했지요.

사이 사이 뽑아서 열무 물김치 담가놓고 살짝 데쳐 국거리 장만하고 된장 양념에 무쳐 놓으니 그것도 진수 성찬이 되네요.

열무 고랑 풀 뽑으며 흙 덮어주고 가지는 옆가지 살짝 잘라주고 옥수수 밭 메다가 허리 아프다 일어나 보고 그러다 보니 호박도 6포기 심었는데 빼먹었음 호박이 화낼 뻔 했네요.

호박옆 풀 둥그렇게 뽑아주고 고구마 비닐 씌우지 않으니 어린 풀 자라 고개 내밀어 호미로 아픈 곳 긁듯이 긁어주니 깨끗해 져 버려 시간만큼 행복해지고 이제 대파는 나이 먹었는지 꽃속을 차지하던 벌들은 다들 돌아가고 씨앗이 열매 맺었는지 까맣게 되어 가는 지라 파꽃 따서 씨받이 하려 푸대에 담으니 양 옆집 아줌마들 서로 다투어 나누어 가고 지나가시던 아줌마도 덩달아 한 푸대 따 가신다.

이제 파는 제 할 일을 다한 탓에 다음 번에 싹뚝거리며 다 잘라내어 새롭게 어린놈으로 다시 한번 키워보려 한다. 이것이 한해를 시작하는 작은 나의 농장이야기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20 이기(理氣)

'이'는 학문(學問)의 세계요, '기'는 수련(修練)의 세계이다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모든 예술 양식에서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은 같이 가는 것이다. 형식 따로 내용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 보는 것뿐이다.

'이기(理氣)'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기'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동시에 작용한다. 이것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분리해 보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理)와 기(氣)란 무엇인가? '이'가 하나의 이치(理致)요 원리(原理)요 법(法)이라면 '기'는 그 실체(實體)요 그 실체의 작용(作用)이라 할 수 있다. 실체의 작용이란 기의 발산(發散)을 말하는 것이다. 기의 존재(存在)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함께 가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는 학문(學問)의 세계요, '기'는 수련(修練)의 세계이다. 이치(理致)를 따지는 '이(理)'의 세계는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야 알 수 있고 배워야 알 수 있다. 수기(修己)를 말하는 '기(氣)'의 세계는 수련의 세계이기 때문에 몸으로 행(行)해야 한다. 행으로 그 경지(境地)에 가 있어야 하고 말으로 그 경지에 가 있어야 한다. '몸과 맘'을 동시에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기(理氣)에서 말하는 학문의 세계는 역학(易學)을 말하는 것이다. '역이란 변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멈춰있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한다는 그 사실'하나일 것이다. 변하는 그 법칙(法則)을 공부하는 학문(學問)이 바로 역학(易學)이라는 말이다. 변하긴 변하되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변한다는 것이다. 그 일정한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다. 그래서 역학은 과학(科學)이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의 이름으로 말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그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치화(數値化)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말을 한다.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變化)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즉운(心卽運)이요, 운즉심(運卽心)이라 하는 것이다. 운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볼 수 없으나 '마음의 작용(作用)'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수치화(數値化) 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요 '과학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東洋)에서 말하는 정신문화(精神文化)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문화는 서양(西洋)에서 말하는 정신문화가 아니다.

서양에서는 물질문화(物質文化)의 반대개념(反對槪念)으로서의 정신문화를 말하는 것이나 동양에서 말하는 정신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정신문화는 '불가시권(不可視圈)의 문화(文化)'를 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아니 볼 수 없는 것까지 내다보고 '미래(未來)를 예측(豫測)한다'는 말이다.

기(氣)의 세계는 수기(修己)를 말하는 것이고 수련(修練)을 말하는 것이다. '맘을 닦고 몸을 닦는'것이다. 심신(心身)의 조화점(調和點)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야 심신의 조화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잡념(雜念)과 욕심(慾心)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안 된다. 분심(忿心)이 일기 때문이다. 사특(邪慝)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사욕편정(邪慾偏情)이 일기 때문이다.

'사욕편정'이 이는데 수련이 제대로 되겠는가? '분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수련이 제대로 되겠는가? 분심을 버려야 한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내가 있어 남이 있고 내가 있어 '나와 남과의 관계(關係)'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쏙 빼 놓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명심(銘心)하기 바란다.

탐방 ③ 소띠목장

인공수정 교육받아 자가수정 번식률 높여

창수낙우회 회원들과 산행으로 건강은 물론 화합유지

한국낙농육유협회 여성분과 포천분회 이복자 부회장이 경영하는 소띠목장(창수면 주원5리)은 원래 시동생 이름(이충호)을 따서 충호목장이었다.

시동생 부부와 함께 잘 경영해온 충호목장은 시동생 부부가 인근에서 군자동 목장을 시작한 후에는 부부가 소띠 동갑내기라서 소띠목장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

소띠목장(대표 이만호)은 자가 인공수정으로 젖소 번식이 아주 높다. 예전에는 발정이 오면 수정사에게 전화해서 오길 기다리다 인공수정 시기를 놓쳐 번식률이 낮았지만 10년부터 축협에서 인공 자가 수정 교육을 받아 본인이 직접 수정시켰다.

처음에는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젖소가 발정이 오면 아침저녁으로 수정을 하였지만 현재는 오랜 경험으로 능숙하게 하여 젖소 번식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착유중 기계결함과 여름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유방염이 제일 걱정이다. 소띠목장에서는 운동장에 TMR 사료급여 하는 곳을 분리하여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항상 트랙터 작업기로 우분을 정리해 밭에 투입하고 젖소들이 쉬는 운동장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 체세포 1, 2등급을 받고 있다.

소띠목장은 목장부지 3000평에 서울우유 쿼터량 879L, 착유소 27두, 건유소 9두, 후보소 32두, 총 68두로 납유량 1톤 규모로 운영중이다.

이복자 부회장은 조사료로 옥수수엔실리지 4천500평과 볏짚 만평을 시동생 부부와 사이좋게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1톤 200L을 목표로 납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유가 많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매주 금요일 창수낙우회 회원과 부부 동반으로 주변 산행도 하고 있다. 산행을 하면서 친목도모는 물론 낙농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창수낙우회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ldmsal8523@hanmail.net